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



부와 권력은 국민과 사회에
‘빛’을 진 것과 같다.
그 빛은 반드시 깊어야 한다.

기사나 왕관을 쓴 왕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의와 무도한 자를 벌주지 않으면
스스로가 범인이다.

신사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기사의 도리에 의해
비겁한 자를 적으로 삼아야 하고
천박한 행위를 보복해야 하니,
이 임무를 무시하는 자는
인정이 없거나, 기사의 자격이 없다.

이탈리아 시인 보이아르도
〈Orlando Innamorato〉 1482~1483



로댕의 〈칼레의 시민〉

동상에 얹힌 이야기

고통과 좌절로 일그러진 동상을 보면, 영웅을 위한 동상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동상은 칼레시민의 목숨을 구해낸 영웅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영웅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영웅 –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우리와 같은 사람.

로댕은 아마도 영웅이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명예를 위한 용기를 발휘해 심리적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영국군 - 프랑스 작은 도시 칼레의 11개월 전쟁

백년전쟁은 14세기 중엽 시작되었다.

프랑스 북부의 칼레라는 작은 도시가 영국군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칼레시민은 굶주림을 견디며 11개월 가까이 항전했다.

결사의 항전을 거듭했지만, 칼레시의 식량은 바닥나고,
참혹한 죽음이 이어졌다. 결국 프랑스의 작은 도시 칼레시 사람들은
항복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영국왕, '6명의 칼레시민 대표자가 처형당해야 항복 인정'

11개월간의 혈투 속에 칼레시에 대한 적개심이 쌓였던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6명의 시민을 대신 처형하겠다. 대신 칼레시민은 생명을 보장받을 것이다. 항복하러 올 때는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에 흙만 입어라” 라고 통보했다.

칼레를 대표해 영국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이다.
더욱이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 나서는 길이다.



칼레시청

칼레시민을 대신할 6명의 목숨, 누가 나설 것인가?

어떤 시민도 선뜻 나서지 못했다.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처형장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것은 용기의 차원이 달랐다.

칼레의 온 시민이 공포와 절망 속에 체념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손을 들었다.
칼레의 갑부 중의 갑부 '외스타슈 드 생피에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그 뒤에 잇따른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뒤이어 칼레의 시장, 법률가 등 칼레의 상류층이 모두 나섰다.



처형일.

최고의 갑부, 시장, 법률가 등 6명은 에드워드 왕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걸고 맨발에
홀쏘만 입고 처형장으로 향한다. 로맹의 <칼레의 시민> 조각상에 얹힌 이야기다.

※ 마지막 삽화와 다르게 에드워드 3세의 은전으로 칼레의 영웅들에 대한 처형은 취소되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부와 권력은 국민과 사회에 ‘빛’을 진 것과 같다.

칼레의 영웅들은 칼레시에서 최대의 부와, 최고의 권력을 향유 하던 사람들이었다. 당대에, 누릴 수 있는 많은 재물과 권력이 차고 넘쳤던 상류층이다. 어쩌면 보통의 사람보다 생명에 대한 미련이 누구보다 많았을 그들이, 타인을 위해서, 칼레의 시민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것은 칼레시에 대한 숭고한 책임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상류층은 자신의 목숨보다 사회와 시민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먼저

자신의 목숨마저 초월한 그들의 사회와 시민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부와 권력은 국민과 사회로부터 빛처럼 받은 것이지,
결코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고귀한 책임의식.

칼레의 영웅들은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남아 있다. 그리고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전설로 기억되고 있다.